

제8장 미국 유학 과정

강명석 목사의 미국 유학은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다. 첫 번째 출국하여 유학의 꿈을 이루었던 것이 아니라 두 번째로 출국을 해서야 어렵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첫 번째 출국은 일본 요코하마항(横浜港)에서 일본 우선회사(郵船會社) 소속 해양 정기선인 ‘타수타마루’[타츠타마루(龍田丸, Tatsutamaru)]를 타고 1931년 3월 24일(화) 출발하여 4월 8일(수) 미국 샌프란시스코항[San Francisco, 상항(桑港)]에 도착하였다. [『신한민보』 (1931.4.9.)] 이때 강명석은 샌프란시스코 천사 섬(Angel Island)의 이민국[移民國,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서 질병(疾病)을 이유로 미국 상륙허가를 받지 못하고 송환(送還)조치를 당하므로 유학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여기서 천사 섬(에인절 아일랜드)은 원래 1850년대부터 미국의 군사요충지(軍事要衝地)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그리고 천사 섬 이민국은 1910년부터 본격적인 이민국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이곳이 바로 조선인 이민자와 유학생들의 질병 검사를 비롯하여 실질적인 입국 조사를 하던 곳이다. 현재 이곳은 관광지(觀光地)로 변모해 있다. 그런데 강명석 목사는 이 천사 섬 이민국에

서 질병이 있다는 판정과 함께 송환조치를 당하는 아픔을 겪은 것이다. 이때 『신한민보(新韓民報)』는 강명석의 제1차 유학 시도와 송환조치를 당하게 된 기사를 실었다. [『신한민보』는 1909년 2월 10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교민단체인 국민회(國民會)의 기관지로 창간된 신문이다.]



이민국이 있었던 Angel Island(왼쪽), 신동아(2018.8.12.)

“본국 개성에 원적을 둔 함동준 씨와 마산 출생인 강명석 씨는 어제(4월 8일) 입항한 탕수타마루 선편을 이용하여 샌프란시스코의 ‘천사 도(천사 섬)’ 이민국으로 건너갔는데 곧 상륙이 되리라고 한다. 양 씨는 내슈빌시에 있는 밴더빌트대학교 신학과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한민보』(1931.4.9.)]

“금월(今月, 4월) 8일에 도미한 강명석 씨는 불행하

게도 링 웜(Ring Worm)이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상륙을 거절당하였는데 이민국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 병의 작은 균이 강 씨의 엄지손가락 다음 손가락의 손톱을 먹어 굵게 되었는데 그 병을 치료하려면 약 6개월 이상이 걸린다고 하면서 CLASS A의 병자로 증명서를 발부하여 고국으로 돌아가라’ 하였다. 강 씨는 미국 유학을 장시간 계획을 세워 준비한 후 수만리(數萬里) 태평양(太平洋)을 천신만고(千辛萬苦) 끝에 건너와서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에서 일주일을 격리(隔離)되어 있었는데, 결국 상륙을 거절당하고 그가 타고 왔던 탕수타마루를 다시 타고 고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할 때 미국의 가혹한 법률이 원망이 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는 본 기자에게 어제(15일) 편지하였는데 그중 한 구절을 소개하면 ‘상륙을 거절당한 나의 정신이 아득합니다. 내가 다시 갈 수 있는 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선생님 나와 같이 건너온 배웁컴 박사를 찾아서 나를 조금 후원해달라고 주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였다.” [『신한민보』(1931.4.16.)]

위와 같이 강명석 목사는 진균류(眞菌類) 중에서 특히 사상(絲狀)의 균체로 된 곰팡이류의 별칭인 사상균[絲狀菌, mold fungi]에 의하여 발병하는 전염(傳染) 피부병(皮膚病)인 ‘링 웜’ 즉 백선[白癬, trichophytia]이라는

질병으로 인해 송환조치를 당하게 된 것이다. [링 웬은 곰팡이의 일종인 피부사상균에 의해 생기는 일종의 피부질환으로 피부에 링 형태의 붉은 반점이 생기는 특징이 있다. 주로 머리, 몸통, 팔다리에 나타나며 손톱, 발톱에도 나타난다. 링 웬은 감염원과의 접촉 후 4~14일간의 잠복기를 거친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가려움증, 통증, 탈모증이 동반되기도 한다. (『조선일보- 헬스조선』(2022.8.3.))]

강명석 목사는 미국 유학의 꿈이 좌절(挫折)되는 아픔을 가슴에 품고 1931년 4월 15일(수) 타고 왔던 탕수 타마루를 다시 타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는 귀국 후 김화읍감리교회로 되돌아가서 목회하다가, 연회로부터 의정부중앙감리교회로 파송을 받아 1932년 3월 20일 담임목사로 취임하여 사역하였다. 이때 그는 차분하게 유학준비를 하면서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의정부중앙감리교회 취임 4개월쯤인 1932년 7월경 담임목사직을 사임하였다. 이어 두 번째로 미국 유학을 목적으로 과감(果敢)하게 출국 준비를 하였다. 그런데, 강명석이 두 번째 출국 시도를 통해서 미국 유학의 꿈을 이룰 수 있었던 여러 요인 중에서 하나의 일화(逸話)에 관하여 그의 외아들 강경태[부산대학교 명예교수, 부산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 박사는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아버지는 집념(執念)이 매우 강하셔서 유학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추진(推進)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신 외할머니께서 외할아버지 몰래 집을 저당(抵當) 잡히시고 당신의 패물(佩物)을 팔아 학자금을 마련해주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도록 주선하여 주셨다고 합니다.”

강명석 목사는 장모 전란 권사가 마련해준 유학경비를 가지고, 일본 요코하마항에서 7월 24일(주일) 미국 여객선인 프레지던트 후버호(SS President Hoover)에 승선했다. 무엇보다도 그는 다시 도전하는 마음으로 1932년 가을학기에 입학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미국을 향해 출발한 것이다. 이어 강명석은 16일간의 긴 여행 끝에 8월 9일(화) 샌프란시스코 천사 섬 이민국에 도착하여 질병 검사 및 미국으로 입국해도 되는지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 그리고 8월 15일(월) 드디어 그렇게도 원하던 미국 입국허가를 받으므로 유학의 꿈을 실현(實現)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일에 대하여 당시 『신한민보』의 기사와 강명석 자신이 쓴 『기독신보』의 「朴兄(박형) 님에게」라는 서간문(書簡文)에서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작년 여름에 미국 유학을 목적으로 도착하였다가

그 손톱에 이른바 ‘링 웜(Ring Worm)’이라는 하찮은 피부병을 구실삼아 시내 이민 당국에 의해 입국을 거절당하고 송환조치를 당했던 강명석 목사는 지난 9일에 입항한 프레지던트 후버호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 이민국의 검사와 조사를 무사히 마치고 무사히 상륙하였다. 강 목사는 본국 목포[필자 주, 김화 오기(誤記)] 등지에서 교회 일(목회)을 보다가 신학을 더 연구하기 위하여 테네시주(Tennessee) 내슈빌(Nashville)에 있는 밴더빌트대학교(Vanderbilt University)에 입학할 예정이라고 한다.” [『신한민보』(1932.8.18.)]

“제1신: 형님, 저는 지난 8월 15일에 겨우 상륙하였습니다. 형님이 잘 아시다시피 저는 작년 봄에 여기까지 왔다가 쫓겨 간 경험이 있는 까닭에 이번에 또 쫓겨 가지 않을까 싶어서 무던히도 마음 졸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송환되지 않고 미국에 상륙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송환될뻔한 어려운 곤경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겨우 상륙하고 보니까 앞으로 미국 유학을 위해 출국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염려(念慮)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강명석(1932.10.19.), 『기독신보』, 「朴兄(박형) 님에게- 미국 오는 길에 느끼고 당한 대로」, 6.]

“제2신: 형님, 제가 요코하마[횡빈(橫濱)]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상항(桑港)]까지 오는 데 꼭 16일이 걸렸습니다. 물 위에서 16일 동안 지내기는 정말로 지루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길을 작년에는 어떻게 왔다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던지 저 스스로도 의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오는 동안에 제일 많이 느껴진 것은 OO의 고적[孤寂, 외롭고 쓸쓸함]이었습니다…. 16일 동안 오면서 느낀 저의 고적의 시름이 야말로 형님에게 어떻게 다 알려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는 별의별 공상으로 인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새운 밤이 몇 날 몇 밤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선실에 있을 때는 내 집에 있는 것 같아서 그다지 고적을 느끼지 않았지만, 선실 밖에 나와 바다를 바라 보니까 고적을 느끼게 됩니다…. 저 혼자 옆드려 흐느껴 운 적이 몇 번인지 모릅니다. 형님이 저의 글을 읽어보시면 형님도 반드시 우실 것입니다…. 고아, 나는 고아다. 집도, 부모도, 형제도, 아무도 없는 외로운 고아다. 집 없으니 갈 곳이 없고, 부모 없으니 돌아볼 일이 없고, 형제도 없으니 함께 하는 자도 없다. 고아의 고적. 고아의 슬픔. 누구에게 하소연하며, 어디 가서 이 몸을 의지할까.” [강명석, 『기독신보』(1932.10.19.)]

“제3신: 형님, 올해는 본국 영사관(領事館)에서부터

입국자 신분에 대해 조사가 작년보다도 훨씬 더 엄격하면서도 정중하였습니다.... 이민국에서 신체검사를 하는 것은 작년보다도 배나 자세하고 꼼꼼하게 하였습니다. 머리끝부터 발톱 끝까지 어디든 보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발가락 사이까지도 다 벌려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창자 속까지 다 검사를 하였는데, 조금이라도 병이 있는 사람은 찾아내어 치료할 사람은 치료를 받게 하고 돌려보낼 사람은 돌려보냈습니다. 이번에 저와 같이 이민국에 간 일행이 39명이었는데 그중에 6명은 순전히 질병으로 인하여 간혀있는 것을 보고 나왔습니다.” [강명석(1932.10.26.), 『기독신보』, 「朴兄(박형) 님에게- 이민국의 검사(檢査)와 조사(調査)」, 6.]

강명석 목사는 “저는 지난 8월 15일에 겨우 상륙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송환되지 않고 미국에 상륙하기는 하였습니다만, 사실은 송환될뻔한 곤경을 치르고 나서야 겨우 상륙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한 것처럼 그는 매우 까다로운 과정을 거쳐 가까스로 이민국(출입국관리소)으로부터 미국에 상륙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가 상륙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중요한 사실은 ‘강명석의 모든 것을 내가 보증한다’라는 미국 남 감리교회 스톡스[Marion B. Stokes, 도마련(都瑪

[illegible]

- 88 -

국 배를 탔습니다. 그 이유는 이민국에서 미국 배를 타고 오는 사람은 일본 배를 타고 오는 사람보다 더그럽게 대한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일본 배보다 조사가 오히려 더 심했습니다.” [강명석, 『기독신보』(1932.10.26.)]

상륙허가를 받은 강명석 목사는 즉시 자신이 목표한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밴더빌트대학교로 가서 신학부 종교학과에 입학원서, 스톱스(Stokes) 선교사와 양주삼 목사의 추천서를 제출하였다. 이어 입학허가를 받으므로 1932년 9월 가을학기부터 유학 생활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입학허가를 받은 강명석은 가장 먼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조선인[朝鮮人, 한인(韓人)] 감리교회에서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미국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이때 강명석은 당시 주일예배에서 겪은 일들을 8월 25일에 작성하여 『기독신보』에 글을 실었다.

“형님, 1932년 8월 21일 주일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우리 교회로는 오직 하나인 Korean 남 감리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황 목사님의 요구로 주일학교에서 이야기도 하고 오전 예배 시간에 말씀 강론도 하였습니다. 주일 학생이 30명 정도 모였는데 나중에 알

아보니까 제가 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알아듣기는 다
 알아들었는데 영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재미가 없
 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주일예배 시간에는 40명 정도
 모였는데 남자는 5명뿐이고 그 외에는 전부 여자와 아
 이들이었습니다. 예배 후에 미시간대학교[University of
 Michigan, 미시간주(Michigan) 앤아버(Ann Arbor)]에서 정
 치경제학(政治經濟學) 조교수(助敎授)로 있는 박노영[朴
 魯永, Ph. D. in Economics] 박사를 반갑게 만나보았습니
 다. 저녁에는 1928년 미국으로 건너와서 프린스턴 신학
 교[Princeton Theological Seminary, 뉴저지주(New Jersey)]
 를 졸업하고, 1932년 웨스턴 신학교[Western Seminary,
 오리건주(Oregon)]에서 구약학(舊約學)을 전공하여 신학
 석사(S.T.M.) 학위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김재준
 [金在俊, 1901.~1987. 한국기독교장로회, 한국신학대학 설립
 에 공헌] 목사가 말씀을 강론하였는데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필리[Philly, 필라델피아(Philadelphia)]라는 곳
 에 와서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학교로 가겠습니다. 앞
 으로는 형님이 관계하시는 『기독신보』가 더욱 발전되
 기를 바랍니다.” [강명석(1932.11.2.), 『기독신보』, 「朴兄(박
 형)님에게- 상항 조선 남 감리교회」, 7.]

강명석 목사는 유학 기간 중 내슈빌에 있는 조선
 유학생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왜

나하면, 『신한민보』에 보도된 내슈빌 학생회 회원명단에 ‘박마리아, 조웅전, 장석윤, 김진국, 조웅천, 이창희, 함용준, 이환신, 그리고 강명석’이 있기 때문이다. [『신한민보』(1932.10.13.)]



밴더빌트대학교, 홈페이지